칼럼

#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나도 가능한 겁니까

최경환 F학점 대자보 쓴
최휘엽(정치외교학 2012) 특별기고

위와 같은 경제정책들이 실제 진행된다면 앞으로 청년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나도 가능한 겁니까?" tvN 드라마 〈미생〉 중의 한 대사다. 계약직 사원 장그래의 회사생활을 다룬 〈미생〉은 많은 직장인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공감을 얻었고,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죽을 만큼 열심히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결국 '계약해지'였다.

요즘의 학생들은 누구나 안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방학이면 계절학기, 외국어 학원, 고시학원, 아르바이트를 한다. 취업원서를 100장 넣어도 1차 합격하는 곳은 십여 곳에 불과하다. 정작 합격하더라도 2년제 계약직, 혹은 인턴부터 시작해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들여다보면 앞으로가 더 캄캄해지는 듯하다.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급상승, 디플레이션, 수출경쟁력 하락 등의 대내적인 문제와 경제위기로 인한 장기 저성장, 일본발 엔저 등의 영향들 속에서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얘기가 매일 수십 번씩 기사로 쏟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 정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정부의 신년계획 구상에서도 구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여전히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 정규직 임금 비정규직 수준 과연 올바른 대책인가?

부동산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 정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규제완화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말은 빚 갚을 능력을 뒷받침해주지 않은 채 빚만 부풀리는 대책 없는 정책일 뿐이다. 실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위축되고 있어 경기부양이 쉽지 않을 것이다.

노동유연화 정책은 더욱 문제가 많다. 정규직 과보호 논란으로 촉발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은 '정규직의 해고요건 완화', '그동안 정규직이 누려왔던 임금과 고용 안전성을 해체하는 동시에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 그리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일'이다.

정부에서는 말한다. 정규직의 과도한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가 그동안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벌려왔고, 정규직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에서는 추가고용을 하기 어려워 고용경직성이 생긴다고 말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정규직의 임금 감소분만큼 과연 실질적으로 고용투자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해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임금격차를 줄이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생활임금을 보장해주면서 임금격차를 줄여 가는 대신에 정규직의 임금을 비정규직의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야한다. 또한 정규직 해고 회피 가이드라인은 좋은 말로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이지만 그 실상은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로도 충분히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이제 중요한 것은 '삼포' 아닌 현질적인 대책 강구

비정규직의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은 또 어떤가? 이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 되었던 2년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2년 이하의 단기계약직이라는 부실한 일자리 대신에, 이제는 4년 이하의 단기계약직이라는 부실한 일자리가 양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계약직은 나갈 사람인데 회사에서 왜 키워줘요?'라는 〈미생〉의 (유명한) 대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단기계약직'이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둔 채 그 기간을 2년 더 늘려본 들 결국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명약관화한 노릇이다.

2015년은 전국 차원의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구조개혁을 할 적기라고 평한다. 그만큼 경제혁신에 박차를 가해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제정책들이 실제 진행된다면 앞으로 청년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 잘못된 경제정책의 후폭풍은 누구도 아닌 국민들이 감수해야한다. 특히 고공행진 중인 부동산 시장과 비현실적인 경제-노동 대책들은 앞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먹고 살 길을 더욱 옥죄어 들 것이다.

유난히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구상 기자회견과 오바마의 연두교서가 비교가 된다. 중산층 살리기를 강력하게 주문하며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다.

"1년 내내 일해서 버는 15,000달러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당신들이 해보십시오(TRY IT)."

한국에서 월 100~200만원 씩 받으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은 '아니오'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삼포', '삶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 원고 전문은 대학주보 온라인(media.khu.ac.kr/k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마당

김태현
(한국어학 2012)

# 역사를 알아야 한류가 열린다

최근 유투브가 싸이의 강남스타일 때문에 카운터를 업그레이드하는 해프닝을 치렀다. 카운터란 동영상을 조회 수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다. 강남스타일 조회 수가 21억 회를 넘어섬에 따라 기존의 카운터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새로 교체한 것이다.

이처럼 강남스타일로 대표되는 한류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뜨겁다. 비단 유투브의 사례만이 아니다. 내가 다니는 학과에서도 이를 실감 할 수 있다. 전공이 한국어학인 만큼 외국인들과 만날 기회가 빈번한 탓일지도 모르겠다. 최근에 수업을 함께 들은 한 일본인 친구는 우리나라 모 아이돌 그룹의 광팬이었다. 그는 수업을 듣는 주3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일은 팬클럽 활동을 다닌다고 했다. 방송사 음악프로그램 방청이나 지방 콘서트 관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해당 아이돌 그룹의 기획사 앞을 전전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실 팬클럽 활동만을 위해 한국을 찾는 유학생 혹은 교환학생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다. 그들의 관심이 한국의 다양한 문화나 역사가 아닌 오로지 K-Pop과 아이돌 가수에만 집중돼 있다는 사실 탓이다.

## 한류가 국가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우리것을 지키려는 노력에 달려있다

한국 가수들의 콘서트가 한창이던 지난 2011년 6월 10일, 프랑스의 중국 문화부 홈페이지에는 중국 국무원이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목록이 게재됐다. 이 중에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회혼례, 씨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우리 문화유산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자기네 문화유산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소프트 파워' 때문이다. '소프트 파워'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하는 '하드파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주로 문화, 사상, 아이디어 등을 그 토대로 한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은 공자 동상을 파괴하고 사당을 불살랐다. 그랬던 중국 정부가 지난 1989년, 공자 탄신 2,540주년 행사 때 성균관의 유생들을 초청해 제사 방법을 배움으로써 그동안 '보수의 원조'라고 비판하던 공자를 부활시켰다. 이후 중국은 공자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공자사상을 문화 상품화함으로써 소프트파워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화를 구실 삼아 역사를 교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정체성을 상실한 세계화란 주체성이 결여된 '정신의 종속'일 뿐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역사와 정체성이 사라진 민족이 세계화 물결 속에서 자신들 것을 지킬 수 있는 단결력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역사를 빼앗기는 것은 소프트파워, 곧 국가경쟁력을 빼앗기는 것이다.

한류가 한 순간의 경제적 문화상품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국가 이미지 변화와 더불어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촉매가 될 것인지의 여부는 전통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리 것을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 기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지킬 것인가.

▶1면에서 이어짐

"찢어 죽일 테야, 말려 죽일 테야"라며 눈에서 레이저광선을 내뿜는듯한 서희. 앞서 말한 것처럼 그녀의 복수극이 〈토지〉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주인공은 그녀가 아니다.

〈토지〉의 진짜 주인공은 1897년부터 1945년을 무대로 삼아 등장하는 600여 명의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그저 그런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나 같고, 또 다른 때에는 저 사람이 나 같고, 이딴 사람이 다 있냐고 진저리를 치다가도 몇 권을 더 읽고 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삶의 굴곡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어떻게 인간다운 가치를 지키는지 혹은 버리는지를 보여주면서 〈토지〉의 광대한 인간 서사가 펼쳐진다. 그와 함께 질문 하나가 독자에게 전해진다.

사람들은 각기 하나씩 자기 별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사람의 머리

그저 티끌같은 삶.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삶을 긍정하기위한 이들의 고투를 보여주는 〈토지〉

론 계산조차 어려운 아득한 곳에서 저 무수한 별들이 빛을 보내고 있다 하는데 한 자 낙낙한 팔이 어찌 내 별을 잡아볼 것인가. 내 앞만 쓸고 사는 티끌 같은 삶, 티끌이 바늘귀 같은 인생의 출구를 빠져나가면 광대하고 무변한 공간……티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꼬. (〈토지〉13권 중에서)

아득한 곳에서 빛나는 별을 잡을 수도 없고, 스스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저 티끌 같은 삶.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토지〉는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고, 삶을 긍정하기 위한 이들의 고투를 보여준다. 그것은 자기 삶에 무조건 만족하는 것도, 고단한 삶을 체념하는 것도 아니다. 그 어떤 것을 만나더라도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토지〉는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선, 수많은 사람들의 궤적을 보여주는 '인간백화점'이다.